

우리나라 면방직업의 발자취 - 07

- 목화 전래로부터 8·15 해방까지 -

6. 일제시대의 면방직업

6.4 공장제 면방직업의 등장

일제시대 초기의 직물업은 농촌, 도시를 막론하고 영세 수공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1차대전으로 인하여 맞이하는 호황과 종전에 뒤이어 밀어닥친 불황의 시련을 겪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식민지정책에 뒤이어 밀어닥친 불황의 시련을 겪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식민지정책에 의한 혹독한 수탈을 은폐하기 위한 유화책으로 추진한 직물업의 장려로 명맥을 유지하여 오던 중 1917년 한국내에 최초로 일본의 자본에 의한 조선방직주식회사가 부산에 설립되었다. 일본의 식민정책에 의한 수순에 따라 그만 정미업, 제사업과 함께 면화의 반출을 위한 조면업에는 상당한 투자를 해 왔지만 최선의 방직·제직공장예의 거액의 투자는 처음이었다.

조선방직은 일본의 거대 재벌 미쓰이계 공장이며, 미쓰이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우리의 면사, 면직물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조면을 위한 남북면업(주)과 함께 조선방직을 설립함으로써 값싼 원면과 확고한 판매시장 뿐만 아니라 값싼 노동력도 풍부하고, 교통도 편리한 부산에 다른 섬유자본보다 한발 앞서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사는 방기 15,200추, 직기 610대를 설치하여 면사 10번수, 16번수, 22번수를 생산하고, 종업원수는 1,600명, 생산량은 면사 1,000곤, 면포 80,000필이었고 이들 제품은 주로 한국내에서 판매되었다.

한편 1917년 경성직유를 인수한 김성수는 이 회사를 육성하여 근대적 방

작공장으로 만들어 우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의 면직물에 대항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옷을 우리의 힘으로 생산해 보고자, 동력으로 움직이는 소폭 역직기 40대를 일본 도요다직기주식회사로부터 도입 설치하였다. 이 역직기가 민족자본으로 설치된 최초의 동력기계로 기록되고 있다. 생산제품은 가스직, 가스단, 추동복용 한양목, 모시 대용품인 한양사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에서 밀려드는 광폭 면포를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경쟁을 하려면 소폭보다도 광폭이라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때마침 조선방직이 설립되자 김성수는 큰 충격을 받고, 서울 시내에 자리하고 있는 협소한 대지, 빈약한 시설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이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일제히 일어나 혹독한 탄압과 착취속에서 목숨을 바친 뜨거운 독립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족적 자주와 자립의 요구는 경제계에도 밀어 닥쳤으니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절실한 것은 이들의 염원과 의지를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었다.

총독부는 조선회사령에 따라 경성방직주식회사의 설립을 순조롭게 허가하여 주지 않았다.

여기서 1910년 합병 즉시 일제가 발포한 조선회사령이 얼마나 우리의 민족자본 공장의 신설을 억제하고 일본자본의 공장을 육성하였는가를 살피고자, <표 19>를 보면 합병 전에도 일제의 통감부는 회사설립을 억제하고 있으며, <표 20>을 보면 연도에 따라 기복은 있으나 대체로 3~6배로 일본인 회사가 한국인 회사보다 많으며, <표 21> 및 <표 22>에서도 자본금이나 공장의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19> 합병전의 회사설립 억제 실태

연 도	신 청 건 수	허 가 건 수
1907	44	2
1908	53	8
1909	20	1

<표 20> 회사령하의 민족별 회사수 비교표

연 도	한국인 회사수	일본인 회사수
1912	34	117
1913	39	132
1914	39	142
1915	39	147
1916	36	147
1917	37	177
1918	39	208
1919	63	280
1920	99	414
1921	123	541
1922	107	598
1923	137	712
1924	131	812
1925	163	938
1926	184	974
1927	213	1035

1928	283	1134
1929	362	1237

<표 21> 공업회사 민족별 자본금

(단위 : 100만円)

연 도	공청자본금				불입자본금			
	한국인	일본인	합 작	합 계	한국인	일본인	합 작	합 계
1911	7.4	10.5	21.9	39.8	2.7	5.1	8.1	15.9
	18.6(%)	26.4	55.0	100.0	17.2	31.8	54.9	100.0
1917	11.5	59.2	6.0	78.7	5.8	38.0	1.9	47.8
	14.6(%)	75.2	7.6	100.0	12.3	79.6	3.9	100.0

<표 22> 민족별 공장비교(공장별)

(단위 : 1,000엔)

연 도	공 장 별		자 본 금		종 업 원 수		생 산 액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1910	151		7,986		8,207		9,223	
1911	66	185	637	9,826	2,397	10,613	1,969	16,920
1912	98	228	941	11,680	3,577	12,838	2,858	25,205
1913	139	391	1,015	15,962	2,669	17,171	2,818	32,353
1914	175	471	715	16,145	3,368	17,208	2,329	28,711
1915	205	564	1,038	18,178	3,447	20,424	3,420	36,287
1916	416	650	1,252	21,713	5,175	22,992	5,439	47,173

1917	605	740	1,882	34,070	7,385	32,468	8,363	84,558
1918	815	875	4,598	30,364	9,203	33,349	22,677	127,046
1919	965	929	7,589	117,510	10,633	37,196	30,494	191,672
1920	943	1,125	9,146	140,229	10,196	41,772	21,269	154,100

[주] (1) 관영공장 제외 (2) 노동자 5인 이상을 사용한 공장임

여러 차례의 트집을 이겨 내어 마침내 허가를 받아 낸 김성수는 우리민족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재력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지주와 유지를 찾아 다니며 “1인1주 운동(1人1株 運動)”을 펼쳐나갔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주식회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주식회사는 형식에 그쳤고, 실제로는 가족회사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으나 경성방직의 총주주수는 188명에 이르러, 이는 공개법인으로서 철저히 주식을 분산시켜 “우리민족의 회사”를 세우려는 설립자의 투철한 신념과 끈기있는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공장부지 16,000평을 구입하고 신축공장에 도요다직기 100대를 설치하여 “우리의 옷감은 우리 손으로...”라는 기치 아래 면직물을 생산하게 되었다. 면사는 전량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고 불리한 점도 많았다. 생산된 직물도 초기에는 품질이, 시장에 넘쳐 흐르고 있는 일본제품이나 부산의 조선방직 제품만 못하여 애도 먹었고, 판매도 일본제품이나 조선방직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으며, 더욱이 1차 대전후에 밀어 닦친 불황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경성방직이 이처럼 고전하고 있을 때 1920년 평양에서 창립된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선의 자립경제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국산품 애용운동을 시작하

였으며, 그 후 1923년에는 전국적○니 규모의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몽부족, 인식부족으로 기대한 것 만큼 큰 도움을 못 받았으며, 이미 국내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의 “3A” 광목에 비견할 만한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했다. 경성방직은 미처 일본상품이 독점하고 있지 않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와 만주의 시장을 개척하는데 성공하면서 경영이 점차 안정궤도를 타게 되었다.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그들의 식민지로 편입한 이후 적어도 1920년대 말까지는 조선에 근대공업이 발전하는 것을 억압하면서 면직업에 있어서는 경성방직과 조선방직의 2대 기업이 두 기둥을 이루며 발전 성장해 온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경제공황은 1931년 일본과 우리나라에도 밀어닥쳐 일제는 이 위기를 대내적으로는 조선인에게의 강압적 손해 전가로 대처하고, 대외적으로는 대륙침략전쟁을 조작하여 타개하려고 하였다. 일제의 악랄한 수탈과 불황으로 몰락해 간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깊은 산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기도 하고, 도시로 나가거나 일본, 중국 등지를 유랑하며 저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실업빈민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는 북간도나 시베리아로 흘러가 나라 잃은 민족으로 정착한 사람도 매우 많았다.

일본산업자본은 공황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1931년 조직된 카르텔(cartel)에 의해 생산제한을 당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사변의 반발로 대륙침략이 개시되자 중요산업통제법과 공장법이 시행되면서 일본 경제는 자유경제로부터 통제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본의 거대자본은 이들의 여러 통제에서 벗어나 값싼 공장부지와 노동력 등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으로의 진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제 군부는 1931년 만주의 군사적 침략에 성공하자, 이에 만족치 않고 바

궤자 그들은 1939년 전시총동원령을 공포하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토지, 자본뿐만 아니라 심지어 각 가정에 있는 낫그릇까지 모조리 앗아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9년 임금임시조치령으로 공포당시의 수준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제의 재벌급 대성유자본은 1930년대 초반부터 군부의 중국대륙 침략에 대응하여 도오요(東洋)방적 인천공장을 1932년에, 가네가후찌방적 광주공장은 1935년에, 도오요방적 경성공장과 가네가후찌방적 경성공장은 1936년에, 다이닛뽕 방적 경성공장은 1939년에 설립되었으며, 이들에 이어서 군제방적은 대구공장으로, 구레하방적은 대전공장으로 1942년 진출하였다. 이 외에도 태평양전쟁의 전세가 불리하게 되면서 일본 본토에 있는 산업 시절에 대한 폭격의 위험성마저 커지자 가네가후찌방적은 춘천공장으로, 다이와방적은 창동공장 등으로 이전해 왔다.

<표 23> 조선 4대 방직회사의 설비규모 변화

구 분	연 도	조선방직	경성방직	동양방직	종연방직
정 방 기	1938	39,376추	21,600추	34,000추	100,000추
	1940	40,720	25,600	77,816	71,360
	1942	53,000	27,200	74,800	91,800
역 직 기	1938	1,210대	896대	2,680대	2,600대
	1940	1,213	900	2,720	2,985
	1942	1,700	900	2,720	3,200

<표 24> 한국진출 일본 방적업체

진출년도	업 체 명	진출년도	업 체 명
1917. 11	조선방직 부산공장	1939. 4	데이고꾸제마 인천공장
1932. 12	도오요방직 인천공장	1939. 4	다이닛뽕방직 경성공장
1935. 8	가네가후찌방직 광주공장	1939. 12	조선제마 전주공장
1936.5	도오요방직 경성공장	1940. 5	군제방직 대구공장
1936.10	가네가후찌방직 경성공장	1942. 12	구레하방직 대전공장

이 공장들은 일본내에서 새로 공포된 공장법에 따라 16세미만 연소자와 여자의 심야작업이 금지되었으며, 중요산업통제법으로 공장확장이나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이런 제약없이 보다 자유롭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싼 임금과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대륙의 제품 소비시장에 인접해 있으며, 원면확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조선면화협회가 염가로 공급해 주는 원면 등 일본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유치, 지원까지 더하여 그들의 한국진출은 면방분야는 물론 다른 산업도 더욱 가속화 되었다.

<표 25>, <표 26>을 보면 50인 이하의 영세공장수에 있어서만 한국국적 공장이 많으나 50인 이상의 공장에서는 공장규모가 커질수록 일본국적 공장이 많아져 200인 이상의 대규모공장은 한국적 공장의 6.5배로 커져 한국적 공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일반적인 공장규모 분포에서 정상적이라면 피라미드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지만 100~200인의 중규모 공장이 가장 적고, 50인 이하와 200인 이상의 양끝이 증가하는 하향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경제구조가 기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표 25> 국적별 고용 직공 규모별 공장수(1937년)

국 적	5~50인	50~100인	100~200인	200인 이상	휴 업	합 계
한국	87	10	1	4	2	104
일본	50	16	3	26	-	95
불명	1	-	-	-	-	1
합계	138	26	4	30	2	200

<표 26> 제품별 고용 직공 규모별 공장수(1937년)

국 적	5~50인	50~100인	100~200인	200인 이상	휴 업	합 계
생 사	84	13	1	20	-	118
견직물	34(1)	1	1	1	-	37
인 견	6	4	2	4(1)	-	16
면직물	3(1)	4	-	6(1)	1	14
마 포	4	2	-	-	1	7
기 타	8	2	-	-	-	10
합 계	139	26	4	31	2	202

[주] <표 25>의 공장 합계수와 다른 것은 제품이 두가지 이상인 공장이 2중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임. 직공 200인 이상 공장에서 2중 계산되고 있는 공장은 조선방직으로, 이 시기에 인견생산을 겸하였기 때문임

한편 경성방직은 만주에서 호평을 받으며 면직물을 판매할 시장을 확보하게 되자 회사경영도 궤도에 올라 그간 두번에 걸친 직기 증설이 있었고, 1935년에 이르자 회사 창립 당시의 사업계획에 “우선 면직물의 제조를 제1기 기업으로 하며, 장래 적당한 시기가 도래되면 구경에는 방적업무도 겸영”

할 것을 명시한 바와 같이 직조의 원료인 면사를 직접 뽑기로 결정하였다. 언제까지나 가장 중요한 제직원료를 일본에 의존해서는 경제독립의 올바른 구현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경영상으로도 방적시설이 없는 방직회사는 제품 판매로 얻는 이익이 박할 뿐만 아니라 면사를 직접 뽑기로 결정하였다. 언제까지나 가장 중요한 제직원료를 일본에 의존해서는 경제독립의 올바른 구현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경영상으로도 방적시설이 없는 방직회사는 제품판매로 얻는 이익이 박할 뿐만 아니라 면사를 주는 대로 받아 써야 하기 때문에 신제품의 개발이나 품질개선, 원가절감 등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일본계 조선방직은 물론 연이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일본 재벌의 면방직공장도 방적과 직조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므로 이들과 맞서 경쟁하려면 시급히 방적시설을 갖추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민족자본에 의한 방적공장이 하나도 없어 방적공장의 시설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1935년 시흥에 공장부지 15만평을 매입하고, 방적기 21,600추와 직기 224대를 일본 도요다에 발주하고, 15년간 조선방직에서 일해 온 한국인 기술자 김규선을 초빙하여 일본에 6개월간 보내 일본 방적공장의 최신시설을 돌아보며 기술을 습득케 하였다. 그리고 공장 신설허가를 총독부 제출하자 난색을 표명하며 불허하여, 결국 새 시설들을 영등포공장내에 설치하는 수밖에 없었다.

과거 우리의 면방직공업은 자본도 적고 기술도 없어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직조에만 매달려 왔으며, 따라서 소요 원사는 전량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였었는데, 이제 적지 않은 자본과 새로운 기술과 우리의 손으로 그간 감히 넘겨다 보지도 못했던 방적공장에서도 우리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사를 뽑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

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경성방직은 새공장에서 10수, 14수, 20수 등 3종류의 면사를 뽑아 14수는 광목용으로 전량 자체소화하고, 10수와 20수는 시판하였다. 또한 경성방직은 두번에 걸쳐 중국대륙 진출을 권유받은 일이 있었으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39년 만주 소가둔에 면방직공장을 세우기로 최종 결정하고 공장부지 27만 평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남만방직주식회사를 창립하고, 다음 해 1940년 일본 도요다에 방기 35,000추, 직기 1,000대를 발주한 후 착공한지 약 18개월만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여자종업원의 모집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고 2차 세계대전이 점차 치열하게 되어 물자난이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 경제체제하라서 독자적인 상품을 생산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도 없고, 감독관청으로부터 배급 받은 원면을 갖고 지정된 제품만을 만드는 단순임가공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의 생산력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면사는 20수 기준으로 1달에 2,500곤, 면포는 태극성 광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1달에 50,000필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하고 많은 고난을 겪으며 겨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남만방적이었지만 1945년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역사의 거칠은 판가름 속에서 공산권에 흡수되는 운명을 맞게 되자 경성방직과의 인연도 끊어지고 말았다.

남만방적이 세계대전 중에 설립되어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 불과 4년 밖에 가동하지 못해 우리 민족의 기상과 긍지를 드높이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줄 수도 없었고, 우리의 경제발전에도 두드러진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한없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역사상 우리 민족이 약소민족의 하나로서 인접국가들의 침략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아 우리의 국위를 널리 외국에까지 선양하였거나 우리의 기상이나 자긍심을 높여준 사례

가 별로 많이 않았으며, 마침내 강압적으로 합방되어 나라 잃은 민족이라는 굴욕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본, 우리의 기술, 우리의 손으로, 완전한 외국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만주땅에 진출하였었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쾌거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표 27> 방직제품 수급상황

(단위 : 1000円)

제 품	1933년					1934년				
	수출	수입	생산	소비	생산율 (%)	수출	수입	생산	소비	생산율 (%)
생 사	14,009					11,473				
작천생사	9,175	-	17,855	3,846	464.2	6,542	-	17,302	5,830	296.7
면 직 사	974	9,412	-	273	-	1,330	6,679	-	137	-
면 봉 사	-	6,800	6,143	11,969	51.3	-	10,329	8,971	17,970	49.9
면 직 물	6,702	1,276	339	1,615	20.9	6,405	1,830	438	2,268	19.9
마 직 물	61	43,802	15,300	52,409	29.1	74	44,165	20,781	58,451	35.5
모 직 물	408	1,916	7,062	8,917	79.1	418	3,203	7,328	10,457	70.0
견 및 견	361	8,528	-	8,120	-	988	9,194	-	9,496	-
· 면교직		6,205	3,076	9,550	38.7		9,309	5,140	13,461	38.1
인견 및	(면직					(면직				
견교직	물에	12,226	792	13,081	6.0	물에	15,901	2,058	2,058	11.4
	포함)					포함)				

일제 말기인 1930년대의 방직제품의 수급상황을 <표 27>에서 살펴보면 금

액기준으로 각종 방직제품중 생산과 면직물의 생산이 가장 크고 수출을 보면 생산 및 작잠생사가 가장 많고 수입은 면직물이 가장 많다. 생산을 소비로 나눈 생산율은 생산의 경우 소비보다는 생산이 훨씬 많아 1933년에는 4.6배, 1934년에는 3배로 수출도 가장 많다. 그 외의 제품들은 모두 생산이 부족하여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 마직물은 70~80%로 자급율이 높은 편이고, 면직물은 불과 30% 내외의 생산율을 보이면서 소비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면직물 생산 및 대일 수입(1934년)

종 별	생 산			대일수입
	공장생산	부업생산	합 계	
총액	14,497,369	6,283,982	20,871,351	44,160,000
옥양목 · 당목 · 인도	1,992,537	-	1,992,537	11,502,000
생면포 · 면머즐린				
조포	12,019,055	-	12,019,055	4,291,000
소창	4,925	5,790	10,715	1,048,000
호목면 및 직색무지	226,146	96,868	323,014	693,000
범포	87,571	-	87,571	286,000
표백면포	11,543	5,955,704	5,967,247	1,029,000
면축	-	2,892	2,892	772,000
의마포	38,247	39,765	78,012	1,101,000
면욕포	4,550	31,288	35,838	1,173,000
면플레넬	-	-	-	2,468,000
한냉사	-	-	-	27,000

포플린	-	-	-	1,188,000
편사	-	-	-	274,000
진즈(jeans)	-	-	-	2,027,000
태능포	-	-	-	9,607,000
면수자	-	-	-	1,944,000
문주지	-	-	-	275,000
린넛(linnet)	-	-	-	2,396,000
기타	112,750	151,719	264,469	3,221,000

<표 28>은 1934년에 있어서의 각종 수입상황을 보이고 있다. 공장에서의 생산품을 보면 광목을 비롯한 조포가 공장제품중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업생산품으로서는 표면면포가 95%로 가장 많으며 공장생산품과 부업생산품의 비는 7대 3으로 되어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을 보면 옥양목, 당목류가 전체 수입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태능포, 면플래넬 진즈, 면수자 등이 비교적 골고루 수입되어 있으며, 총수입액은 총생산액의 2배를 약간 넘고 있어 자금율은 수요의 약 1/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업생산액은 여전히 시장에 넘쳐흐르는 일제 수입면직물과 대규모의 최신직기로 생산되는 공장제품에 밀려서서히 쇠퇴해가면서 총수입액과 총생산액의 총계 6,500만엔의 9.7%로서 10%에도 못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주요 직물의 대일 의존성

구 분	1941년		1942년		1941~42년 평균		합 계	합계에 대한 B 의 비율
	한국산	대일 수입	한국산	대일 수입	한국산 (A)	대일 수입(B)		
견직물	1,365	48,118	8,671	67,367	5,018	57,742	62,760	92(%)
견교직물	12,345	49,110	16,531	25,923	14,438	37,516	51,954	75
인견직물	23,296	23,960	19,395	31,220	21,345	27,590	48,935	56
스프직물	-	6,757	-	3,851	-	5,304	5,304	100
면직물	137,143	2,928	79,495	4,778	108,319	3,853	112,172	3
마직물	3,376	3,792	6,413	7,557	4,894	5,674	10,568	53
모직물	-	6,119	-	7,671	-	6,896	6,896	100
기타교직물	3,216	-	3,441	-	3,328	-	3,328	0
기타직물	605	1,064	553	715	579	890	1,469	60
합 계	181,346	141,848	134,499	149,082	157,921	145,465	303,386	-

<표 29>를 보면 우리의 각종 주요직물이 2차 대전말기인 1941, 42년에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일 먼저 스프(SF)직물과 모직물은 생산이 전혀 없어 수요가 큰편은 아니지만 100%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견직물은 92%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누에고치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면직물만이 일본의존율이 3%로 국내의 생산량으로 수요를 거의 충당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부터 일본의 거대 면방공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